

문제적 악동 히어로 vs 스타워즈 새로운 콤비

썸영화 VS 영화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가 천만 관객을 동원한 가운데, 히어로물의 열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전망이다. 더 막강해진 유머와 액션, 스케일로 업그레이드돼 돌아온 '데드풀2'(감독 데이빗 레이치)와 화려한 전투액션과 첨단 특수효과를 자랑하는 '한 솔로:스타워즈 스토리'(감독 론 하워드)가 연달아 개봉한다.

◆ '데드풀2' 개성 만점·재미 보장!

오는 16일 국내에서 전세계 최초 개봉하는 영화 '데드풀2'는 액션은 기본, 거침없는 입담과 유머로 중무장한 마블 역사상 가장 매력터지는 히어로 데드풀(라이언 레놀즈)이 미래에서 온 위기의 히어로 케이블(조슈 브롤린)을 만나 원치 않는 팀 '엑스포스'를 결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라이언 레놀즈가 데드풀 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아톰틱 블론드'를 통해 스타 일리시한 액션과 감각적인 영상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데이빗 레이치가 메가폰을 잡았다. 데드풀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케이블 역은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타노스로 잘 알려진 조슈 브롤린이 맡았다. 데드풀과 케이블을 대적하는 유일한 여성 히어로 도미노 역에는 재지 비츠가 캐스팅됐다. 아울러 모레나 바카린, 브리아나 힐데브란트 등 전편의 반가운 출연진들이 다시 합류해 기대를 모은다.

'데드풀2' 개봉에 앞서 해외 프리미어



와 국내 언론사사회를 접한 국내의 주요 언론과 평단은 전편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볼거리와 유머에 대해 호평을 쏟아냈다.

앞서 열린 내한 기자회견에서 라이언 레놀즈는 "데드풀은 다른 슈퍼 히어로들에게는 없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관객은 '어벤져스'와는 다른 무언가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영화는 캐릭터들이 관객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랑받을 거라고 자신한다"며 "세련된 유머감각과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뽐뽐뽐 데드풀의 매력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데드풀2'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팀 '엑스포스'에 대한 관객의 궁금증도 상당하다. '엑스포스'에는 전편에서 활약한 네가소닉 틴에이지 워헤드를 비롯해



데드풀2

거침없는 입담·근본없는 유머감각 새롭게 등장하는 팀 '엑스포스' 관심

케이블과 도미노, 비밀에 부쳐진 멤버까지 이색 케미를 선보일 전망이다.

◆ '한 솔로:스타워즈 스토리' 칸 영화제서 쏟아지는 관심

2018 칸 영화제 최고의 화제작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는 오는 24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는 개성 만점 캐릭터들이 문제적 매력 가득한 '팀 솔로'로 총 집합해 액션 블록버스터의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끝냈다. 해당 작품은 최고의 파일럿을 꿈꾸던 주인공 한 솔로가 예상치 못한 팀에 합류, 상상을 초월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새로운 히어로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어드벤처 블록버스터다.

이성보단 액션 본능이 앞서는 열정 충만한 '한 솔로'와 한 솔로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만능 재주꾼 '츄바카',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2018 칸 영화제 최고의 화제작 꼽혀 화려한 전투액션·흥행 신기록 귀추

한 솔로의 과거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수수께끼의 동료 '키라', 이들을 위협한 만한 임무로 이끄는 문제적 멘토 '베키', 소문난 밀수꾼 '랜도' 등이 팀 솔로를 결성한다.

'팀 솔로'의 상상 초월하는 팀 구성과 탄탄한 스토리는 영화팬들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뷰티풀 마인드' '다빈치 코드' 시리즈의 거장 론 하워드가 메가폰을 잡아 견고한 연출력은 물론 대중적인 재미까지 선사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모노레일 스텐트 액션과 세상에서 가장 빠른 함선 밀레니엄 팔콘을 타고 벌이는 화려한 전투 액션, 대규모 스케일의 첨단 특수효과를 선보이고, 업그레이드된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관객 층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특히 '한 솔로:스타워즈 스토리'는 제

71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유력 언론매체들의 집중 보도 대상이었다. 세계 10대 신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언론사 더 타임스는 "2018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소개했으며 BBC NEWS, LA타임스 등에서도 올해 주목해야 할 작품으로 앞다투어 보도했다.

미국의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한 솔로:스타워즈 스토리'가 북미의 기념일인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총 1억 7000만 달러(한화 1824억원)의 오프닝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역대 메모리얼데이 최고 오프닝 영화인 '캐리비안의해적:세상의끝에서'의 1억 3980만 달러를 뛰어넘는 기록으로 역대급 흥행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이십세기福克斯코리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시청률 1%보다 100만뷰... 요즘 드라마는 모바일 대세

일상의 이야기가 젊은층 공감 불러 마케팅 수단으로 '웹드라마' 트렌드

"틀어날 뉘도 3% 이상은 찍는다"는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이 무너졌다. 최근 종영한 MBC의 '위대한 유혹자'의 경우가 그렇다. 인기 배우 우도환과 박수영을 주축으로 젊은 배우들을 내세웠지만, 시청률은 1%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요즘 인기 있다는 웹드라마는 시청률과는 상관없이 100만뷰를 넘어 수천만뷰, 역대 뷰까지 찍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상의 '바이럴' 화제성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대세라고 할 수 있다.

◆ 젊은층 파고든 일상 속 웹드



웹드라마 '달콤쌈살로맨스', '오구실'. /JM컬처

웹드라마 중 가장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작품은 30대 직장녀의 일상을 담은 '오구실'이다. 2015년 시작한 '오구실'은 지난해 시즌3 종영까지, 누적 조회수 1500만건을 기록했다. 10~30대의 연애 스토리를 다룬 '연애 플레이리스트(연플리)' '전지적

짜사랑 시점(전짜시)' 등도 각각 2000만 뷰, 1000만뷰를 넘어선 흥행작이다.

이들 작품은 모두 틱스타급 아이돌이나 유명 배우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대박'을 쳤다. 무명의 신인 배우들이 담아낸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젊은 층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탄탄한 팬층을 양산했다는 분석이다.

이달 4일부터 올레TV와 네이버TV,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달콤쌈살로맨스'도 공개 일주일만에 1만뷰를 넘어 서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달콤쌈살로맨스'는 신인배우 김슬미, 최재이가 제주도 게스트 하우스에서 만나 달콤쌈살처럼 한 썴을 타는 모습을 그린다.

◆ 안방극장 역공략... 마케팅 수단으로도

1순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웹드라마를 스트리밍 하는 젊은층이 급속히 늘어나자, 거대 시장이었던 방송사 드라마판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온라인에서 검증된 웹드라마를 방송사 플랫폼에 트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정일우 진세연 주연의 웹드라마 '고품격 짜사랑'은 지난 4월과 5월 종합편성채널 MBN을 통해 방송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이 작품은 이미 2015년 11월에 중국과 한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개돼 무려 3억 뷰를 찍은 한류 웹드라마로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히트작이다. 보통 100만뷰 달성을 웹드라마의 성공 기준으로 보는데 3억 뷰면 무려 300배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높은 시청률에 단가 높은 광고가 붙는 것처럼 요즘은 될 성 부른 웹드라마에 제작자 지원을 하거나 PPL을 투입시키거나, 광고를 대체할 브랜드 콘텐츠로 만드는 '스마트' 마케팅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기도 하다.

'달콤쌈살 로맨스'의 제작사 JM컬처 박윤호 대표는 "웹드라마는 모바일을 친숙하게 사용하는 젊은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좋은 내용으로 입소문이 나면 '공유' '좋아요' 기능을 타고 큰 파급력을 발휘한다. 또한 생방송에 가까운 족대본 때문에 억지스럽게 들어간 지상파 PPL에 비해 더욱 자연스럽게 치밀하게 PPL이 녹아들어갈 수 있어 광고주나 시청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다. '달콤쌈살 로맨스'의 경우에도 뷰티 편집샵인 '트렌드바이미'로부터 제작자 지원을 받아 원만한 구조로 기획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2 | 해질 / 19:35

5월 16일
음력 : 4월 2일

수도권 날씨
24~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스포츠 한줄 News

▲ 골프여제 박인비(30)가 15일 발표한 볼레스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평균 7.35점을 기록해 4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유지했다. 뒤이어 평산산(중국), 렉시 톰슨(미국), 박성현, 유소연, 아리아 주타(태국), 김인경이 세계랭킹 2위~7위를 기록했다.



시를 비롯해 세르히오 아구에로, 곤살로 이과인, 파올로 디발라, 마우로 이카르디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와 수비진에도 앙헬 디 마이라,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등의 경험이 풍부한 선수가 선발됐다. 월드컵에 나설 최종 23인 명단은 다음 주 확정한다.

▲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한 달 앞둔 신태용호가 최종 엔트리 23명을 사전캠프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인 6월 2일 확정한다. 앞서 14일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 소집명단 28명을 발표한 바 있다.

▲ FA 최대어 전광인이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는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क्स 배구단은 15일 남자프로배구 자유계약선수(FA) 2차 협상에서 전광인 선수와 5억 2000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3년이다.

▲ 아르헨티나축구협회가 15일(한국시간)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나설 예비 명단 35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격수에는 메

▲ 오승환(36·토론토)을 품에 안은 토론토의 선택이 옳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승환은 15일 기준 19경기에서 18%이닝을 던지며 1승1세이브2홀드 평균자책점 1.45를 기록 중이다.